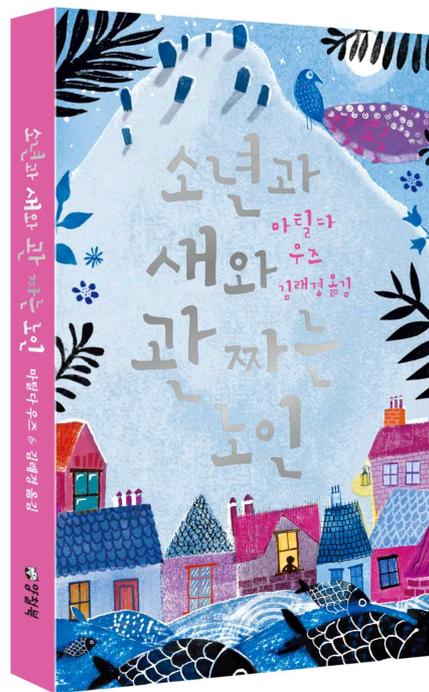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

마틸다 우즈 쓰고 야누스카 아예푸스 그림



작성: 파주초등국어모임 새로운 길



●●● 수업의 초점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책을 읽기 전에 하는 몸풀기 활동입니다.

책의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펼쳐질 이야기를 예측해 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질문과 학생 간 질문 응답으로 진행합니다.

표지와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해 봅니다.

작품과 인물에 대해 예상하고 상상하여, 실제 작품을 읽으면서 독서 전 예측하고 비교하며 읽을 기회가 됩니다.

●●● 수업 속으로

1 책과의 새로운 만남

-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을 읽으려고 합니다. 표지를 찬찬히 살펴봅시다.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 보고, 후루룩 넘겨 보고, 책 안쪽도 살펴봅니다.
-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 책은 어떤 느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나요? 무엇을 보고 그런 이야기라고 예상하나요? 무서운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등등.

2 책 표지 살펴보고 알아보기

- 책의 표지에는 많은 정보와 단서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 표지를 살펴보며 보이는 것을 공책에 써 보세요.
- 표지에 보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표지에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질문하며 이야기 예측하기

- 이야기의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상상해 볼까요?

알베르토의 첫 번째 관	알베르토가 소문을 듣다
시장의 이른 주문	티토, 글을 배우다
신비로운 새	알베르토의 약속
보니토 양, 당신은 누구였나요?	티토의 결심
장례식과 도둑	시장이 나뉘다
엄마가 지키지 못한 약속	집보다 비싼 관
알베르토의 견습생	친구를 잃은 티토
황금참나무 행진	티토의 망원경
희미한 맥박	우정 어린 경고
등불의 비행	피아의 선물
케이크와 사탕, 그리고 딸기잼	
티토의 첫 번째 이야기	
도둑이 사과 세 알을 훔치다	

- 목차를 보니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누구인가요? (알베르토, 티토, 보니토 양, 피아)
- 기대되는 목차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목차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모르는 단어에 관한 질문, 내용에 관한 질문 모두 좋습니다.
- 학생 질문 : 알베르토의 첫 번째 관은 누구의 관인가요? 왜 죽었나요?
엄마가 약속을 왜 못 지켰을까요?
집보다 비싼 관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누구의 관일까요?
'희미한 맥박'은 무슨 뜻인가요?

4 읽기 방법 정하기

- 우리 학급에서 함께 읽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선생님이 첫 번째 장을 읽겠습니다. 책을 펼쳐서 함께 읽습니다.
- 모둠에서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기
- 짝이랑 서로 한 페이지씩 읽기
- 낭독 희망자가 한 페이지씩 대표 낭독하기
- 읽는 친구가 틀렸을 때 끼어들어 읽기

●●● 수업 팁

1.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을 읽을 때 사용하겠습니다.
2. 그날 읽은 부분에서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 찾아 쓰기, 모르는 낱말 찾기, 질문하기,

읽고 난 느낌 쓰기를 합니다.

3.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 수업의 초점

읽기 중 활동입니다.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를 하면 인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물 이해를 통해 작품을 풍부하게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 수업 속으로

1 일기를 쓰는 인물 되기

-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겠습니다. 알베르토, 티토, 시장, 피아, 티토 아버지가 되어 일기를 씁니다.
- 모둠에서 뽑기를 하거나, 희망하는 인물이 되어 쓰거나 학급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2 일기 쓸 장면 고르고 쓰기

- 일기 쓰는 방법을 묻고 대답하며 일기 쓰기 방법을 기억합니다. (날짜, 날씨, 있었던 일 자세히 쓰기, 그 일에 대한 느낌 쓰기, 속상한 일, 기뻐던 일 등을 자세히 쓰기)
- 날짜는 선생님이 정해 주시면 더 실감 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임의로 정합니다. 1756년 3월 9일처럼)
- 책을 다 읽고 나서 활동을 할 때는 갈등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면 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 보니토 양이 죽었을 때 알베르토, 엄마가 죽었을 때 티토, 피아가 사라진 날, 티토의 아빠가 찾아온 날, 마지막 장면에 배를 타고 알로라를 탈출한 날)
- 주인공의 일기만 쓰려는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인물이 되어 일기를 써 보게 지도합니다.

3 일기 쓰고 돌려 읽기

- 일기를 쓰고 모둠에서 돌려 읽습니다.
- 겪은 듯이 있었던 일을 자세히 쓰고, 느낌을 살려 쓴 글을 찾아 학급에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 수업 팁

1. 친구들이 쓴 일기를 보고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2. 장면을 사건 위주로 정해서 연속하여 일기 쓰는 것, 일회성으로 쓰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 감정이입을 위해 음악을 들려주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4. 마지막에 알로라를 탈출한 날 이후의 일기를 쓰면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읽기 후 활동으로도 좋습니다.

●●● 수업의 초점

이야기 흐름 속에서 인물 또는 상황별로 핵심 키워드를 찾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나눠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에 친구의 생각을 덧붙이며 생각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토의 활동은 학생 개인이 지닌 가치관을 알아 가는 활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토의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이며,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보는 활동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업 속으로

1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을 읽고 떠오르는 날말 써 보기

-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떠오르는 날말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씩 쓰기 (1인당 3~4개의 포스트잇을 나눠 주면 좋아요.)

2 칠판에 유목화하기

- 친구들이 붙여 놓은 날말을 보며 같은 날말 또는 뜻이 비슷한 날말 아래에 자신의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안내하기
- 마지막 친구가 붙인 다음 교사가 하나씩 읽어 가며 학생들이 한 날말 유목화를 최종 정리하기

3 날말 6개 골라내기

- 유목화한 날말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날말 순으로 5~6개(모둠 수만큼) 골라내기
- 같은 수의 날말이 있을 때, 함께 골라내며 토론을 할 모듬의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면 좋아요.

4 골라낸 낱말을 통해 토의 주제 정하기

[표1] 낱말의 예

전염병	관(죽음, 장례식)	가족
시장(권력)	아빠(아동학대)	이슬라(꿈의 세계)

♠ 활동 1. 이야기 속 낱말의 의미 이야기 나누기

- 학생들이 골라낸 낱말에 ‘전염병’이 있다면 전염병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전염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전염병은 알베르토에게 ‘악마’이다 또는 ‘저주’이다, 하며 이야기를 펼칠 것입니다. 교사는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질문하며 전염병이 주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활동 2. 생활 속 낱말의 의미 이야기 나누기

-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전염병’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누기가 마무리될 즈음 교사는 이 낱말을 우리 생활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전염병’이란 어떤 의미인지,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혼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활동 3. 토의 주제 정하기

- 2번처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토의 주제를 찾는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의 발표로 토의 주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교사가 앞 친구에게만 들리게 슬쩍 토의 주제를 말해 주세요. ‘급식실에서 말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2~3차시에 걸쳐 낱말별 토의 주제가 정해지면 칠판에 아래와 같이 게시해 둡니다.

[표2] (예시) 낱말별 토의 주제

낱 말	토의 주제
전염병	급식실에서 말하면 안 된다?
관(죽음, 장례식)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요?
가족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랑일까요?

시장(권력)	권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빠(부모)	부모님께서 ○○○○ 해 주실 때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
이슬라(꿈의 세계)	나의 이슬라는 어떤 세계인가요?

- 토의 주제는 하루 정도 아이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게시해 둡니다.

5 모둠별 낱말 토의하기

- 모둠별로 토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 모둠별로 협의하여 희망하는 주제 1~3까지 정하도록 지도합니다.
- 게시된 토의 주제를 교사가 말하면 희망하는 모듬의 학생들은 손을 듭니다. 이때 많은 모듬이 손을 들면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주시면 됩니다.
- 우리 받은 모듬 선택이 필요할 때 희망하는 모듬끼리 자신의 모듬이 왜 그 주제를 해야 하는지 설득하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모듬으로 주제가 가는 경향이 생기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활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며 토의 수업에 앞서 말하기 워밍업이 되기도 합니다.
- 모듬별로 토의 주제가 정해지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학습지에 적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의 의견 중에 마음에 드는 의견이 있다면 학습지에 적도록 합니다.
- 친구들과 의견을 나눈 후 각자 학습지에 토의한 후의 소감을 적도록 합니다.
- 소감은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토의 후 자기 생각의 흐름이나 변화를 적도록 지도합니다.
- 학습지는 제출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기록한 뒤 게시해 두어 공유합니다.

6 그 밖의 활동

-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면 학급 활동으로 2~3일에 한 주제를 게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쓰고 붙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 주의할 점은 장난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스트잇에 쓸 때 자기 이름을 꼭 쓰게 하여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느끼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쓰도록 지도합니다.
- 교사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의견을 읽어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주제에 관한 관심도 유지하면서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학년 ()반 이름()

날짜	202()년 ()월 ()일 ()요일		
도서명			
토의 주제			
내 생각	(예시) 나는 ○○○○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 ○○○○○ 하기 때문이다. 2. ○○○○○ 하기 때문이다. 3. ○○○○○ 하기 때문이다. ※ 근거는 2개 이상 쓰도록 합니다.		
친구의 생각	이름 ()	이름 ()	이름 ()
소감	※ 토의를 하면서 자기 생각의 흐름 또는 변화를 생각하며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 봅시다.		

●●● 수업의 초점

온작품 읽기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책 속의 사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배움과 통찰의 활동입니다.

특히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의 배경은 코로나 시대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알로라와 지금 여기를 비교해 보고, 나와 티토를 비교하고, 부모님과 티토의 부모님을 살펴보는 등 지금과 그때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인물의 성격이 사건의 원인과 결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업 속으로

1 책에 나온 인물과 닮은 성격의 사람 찾기

- 책에 나온 인물과 나와 닮은 점을 찾아봅니다. (예: 알베르토와 나- 재치 있게 위험한 상황을 잘 벗어난다./ 티토와 나- 책을 좋아한다./ 피아와 나-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 시장과 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 피네스트라와 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 책에 나온 인물과 닮은 성격의 사람 찾아봅시다. 친구와 가족, 이웃들을 생각하며 찾아봅니다.

2 사건과 배경

-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질문으로 사건들을 찾아봅니다. (예: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족들이 헤어져 살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 책 속 알로라 마을과 우리가 사는 이곳에 비슷한 점을 찾아볼까요? (예: 빵집이 있어요./ 정치가가 자신만 생각해요./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3 월드 카페로 탐구하기 : 지금 여기 / 그때 알로라

- 준비물: 4절 도화지, 색연필이나 매직(굵고 진하게 나오는 것이 좋음)
- 월드카페 방법을 이용해 탐구하기
 - (1) 모둠을 주제 수에 맞게 나누고 모둠 리더(호스트) 정하기
 - (2) 교사는 모둠에 주제와 도화지, 색연필 배부
 - (3) 호스트는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며 도화지에 자유롭게 생각을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
 - (4) 일정 시간 후 교사의 신호에 따라 호스트만 자리에 남고 모듬원은 다른 주제의 모듬으로 이동
 - (5) 새로 만난 친구들과 (3),(4)번 활동을 반복
 - (6) 모든 (여러) 모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처음 모듬으로 돌아와 리더(호스트)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누기
 - (7) 모듬별 발표, 정리하기

주제: ① 알로라에서 겪은 티토의 어려움 ② 알로라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 ③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④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마음가짐, 제도, 태도 등) ⑤ 어려움을 이겨 낸 경우와 그 방법 들

☞ 월드카페는 자유로운 토론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월드카페 진행 방법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WExFMjFeaU>

4 작가는 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기

- 작가가 하고 싶은 말(주제)은 무엇이였을까요?

●●● 수업 팁

1.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 이야기가 우리 일상과 흡사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닳은 인물을 찾을 때 좋지 않은 특징을 가진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합니다.
3. 표를 그린 학습지를 주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	공통점
나와 알베르토	
티토와 나	

4. 월드카페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해 적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 수업의 초점

책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문장을 찾습니다. 교훈이나 주제가 드러나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너무 웃겨서, 너무 슬퍼서, 이상해서 등등 내 마음의 문장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 주면서 독서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속으로

1 《소년과 새와 관 짜는 노인》 살펴보기

-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밑줄을 그었던 내용을 살펴봐요.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 봐요.
- 책을 다 읽으면 읽을 때는 특별하지 않았던 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책을 쭉 훑어보며 내 마음의 문장을 찾아봅시다.

2 배경 장면 만들어 보기

- 문장과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어 볼까요?
- 그림을 그려도 되고 색칠만 해도 됩니다. 내가 찾아낸 문장과 어울리는 분위기로 꾸며 봅시다.
- * 준비물: 파스텔이나 색연필, 사인펜

3 A4 도화지에 배경을 만들고 내 마음의 문장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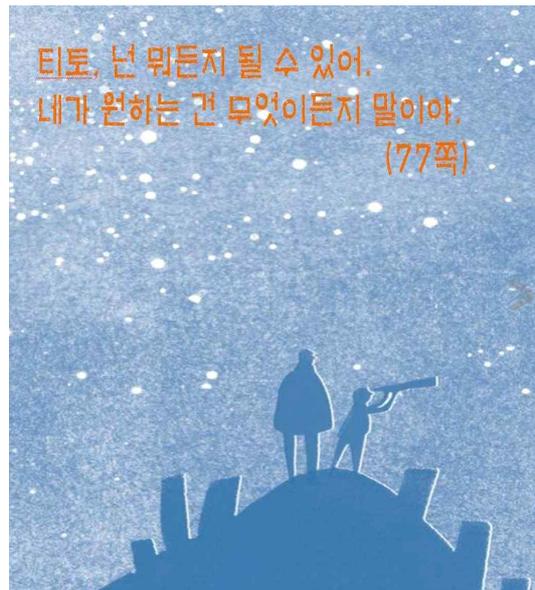
- 그림을 그려도 되고 색칠만 해도 됩니다. 내가 찾아낸 문장과 어울리는 분위기로

4 생각 나누기

- 친구들 앞에서 내 마음의 문장을 발표해 봅시다.
- 왜 그 문장을 골랐는지도 이야기해요. 같은 문장이어도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 수업 팁

1. 선생님이 먼저 문장을 찾아서 이유를 말해 주면 좋아요.
2. 친구가 찾은 문장에 공감하면 스티커 붙여 주기를 해 봐요.(개수는 제한 없음)



▲ 예시 자료

●●● 수업의 초점

알베르토는 죽어 가던 티토를 집에 데려온 후 ‘티토를 확실히 깨워 줄 뭔가 달콤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케이크(트리플 크림 가토), 사탕, 딸기잼에도 꿈쩍하지 않던 티토가 알베르토가 ‘아내의 조리법’으로 만든 ‘초콜릿 푸딩’ 냄새를 맡고 깨어납니다. 티토를 깨어나게 한 ‘초콜릿 푸딩’은 티토의 기호도 있겠지만 알베르토의 정성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 티토를 깨울 수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힘 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부모님이 차려 주신 정성 어린 밥상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나를 기운 나게 하는 음식, 추억이 깃든 음식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활동을 ‘내 마음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수업 속으로

1 내용 확인하기(109~117쪽)

- 알베르토는 티토를 깨어나게 하려고 어떤 음식을 구하러 다녔나요?
- 티토는 어떤 음식을 먹고 깨어났나요?
- 다른 음식들에는 깨어나지 않았던 티토가 초콜릿 푸딩에 반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음식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 평소에 내가 즐겨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학생들이 말하는 음식을 칠판에 쓰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 티토가 알베르토가 직접 만들어 준 ‘초콜릿 푸딩’을 먹고 깨어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자다가도 별떡 일어날 만큼 먹고 나면 힘이 나거나 기분 좋아지는 음식, 또는 추억이 담겨 있는 음식 세 가지만 떠올려 그 사연을 학습지에 써 보세요.

3 나만의 메뉴판 만들기

- 위 세 가지 음식을 ‘내 마음을 살리는 음식’ 메뉴로 선정하고 친구들에게 그 음식을 팔려고 합니다. 메뉴판에 들어갈 내용을 학습지에 완성해 주세요.
- (1) 내가 떠올린 음식 세 가지를 이용해서 메뉴 이름을 정합니다. 음식 이름은 음식이 주는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붙여 보세요. (예: 분노 폭삭 매운 떡볶이)
- (2)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간단히 설명을 써주세요. (예: 화가 났을 때 이 떡볶이를 먹으면 매워서 열도 나고 땀이 나면서 화났던 것을 잠시 잊게 할 수 있다.)
- (3) 가격은 실제로 매길 수 없는 것으로 정해 주세요. (예: 숨 고르기 30번)
- 자신이 작성한 학습지를 보고 A4 도화지에 “OO이의 마음을 살리는 음식 메뉴판”을 만듭니다.
- 음식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 주세요.
- 시간이 남으면 메뉴판 표지도 직접 꾸며 주세요.

4 친구들의 메뉴판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정하고 발표하기

- 모둠 친구들이 만든 음식 메뉴판을 돌려 가면서 읽고 먹고 싶은 음식(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골라서 음식 이름과 그 이유를 학습지에 써 주세요.
- 전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고른 음식과 이유를 발표해 볼까요?
- 모둠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 수업 후 학생들이 만든 메뉴판을 전시하기

●●● 수업 팁

1. 교사가 먼저 자신의 음식에 대한 경험을 말해 주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치킨, 피자’같이 천편일률적인 대답에서 벗어나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제 먹어 본 음식이 아니라 상상해서 음식의 효과를 만들어도 허용해 줍니다.
3. 다른 친구들의 메뉴를 보고 고를 때 평소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고르기보다 친구들이 붙인 음식 이름과 설명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음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예: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친구였다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떡국’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런 활동도 좋아요

1. 도화지로 메뉴판 만들기 활동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지점토(클레이)로 만드는 활동도 좋아요.
2. 시간이 없으면 메뉴판 만들기 활동을 하지 않고 학습지를 작성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하는 활동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3. 도화지로 메뉴판 만들기 활동을 할 때 잡지나 다양한 음식 사진을 미리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그 음식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음식의 맛이나 재료 등을 상상해서 이름을 정하고 그 음식이 주는 효과를 써 보는 것도 좋겠지요.

내 마음을 살리는 음식

()학년 ()반 이름()

- 티토가 '초콜릿 푸딩'을 먹고 깨어난 것처럼 먹고 나면 힘이 나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 누군가와 추억이 있는 음식 세 가지만 떠올려 써 보세요.

음식 이름	어떤 사연이 있나요?

- 위 세 가지 음식을 '내 마음을 살리는 음식' 메뉴로 선정하고 친구들에게 그 음식을 팔려고 합니다. 메뉴판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해 주세요.

내가 붙인 음식 이름			
이 음식의 맛, 색, 씹을 때 느낌 등 특징은?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가격			

- 친구들의 메뉴를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른 후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음식 이름	친구 ()의 ()이다.
고른 이유	

●●● 수업의 초점

‘피아(새)’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나만의 피아를 상상하여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이 작품을 읽는 데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을 나와 연결하고 이야기에서 얻은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속으로

1 피아와 소년의 관계 이야기 나누기

- 피아는 소년에게 어떤 존재일까?
- 소년은 피아에게 어떤 존재일까?

2 내가 생각하는 피아의 모습 이야기 나누기

- 여러분에게 피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 줄 수 있는 크고 강인한 모습일 수도 있고, 작고 부드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 피아의 크기, 색깔, 생김새, 촉감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3 피아 만들기

-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아의 모습이나 특징, 이름을 학습지에 써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피아를 그려 봅시다.
- 8절 도화지에 피아를 그리고, 다 그리면 오리기
- 피아 머리에 낚시줄 붙이기

4 피아를 표현하는 단어 쓰기

- 여러분이 만든 피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세 가지 생각해 보고 피아의 뒷면에 적어 봅시다. 예를 들면 자유로움, 편안함, 희망 같은 말을 적을 수 있겠죠.

5 내가 만든 피아 발표하기

- 여러분이 만든 피아를 발표해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피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이야기해 봅시다.
- 수업 후 학생들이 만든 피아를 창가에 달아 전시하기

●●● 수업 팁

1. 수업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면 피아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2. 피아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예시를 보여 주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어요.

기쁜	사랑스러운	편안한	친절한
멋진	상냥한	평온한	조용한
명랑한	생기있는	평화로운	힘찬
용기있는	믿음직스러운	행복한	다재다능한
유쾌한	안정적인	호기심 넘치는	통찰력 있는
자신감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활기찬	밝은
자유로운	흥미로운	희망찬	재미있는
즐거움	차분한	정직한	활기 넘치는
긍정적인	찬란한	책임감 있는	
놀라운	친근한	부지런한	
따뜻한	침착한	창의적인	
활발한	쾌활한	다정한	

●●● 이런 활동도 좋아요

[우리 반 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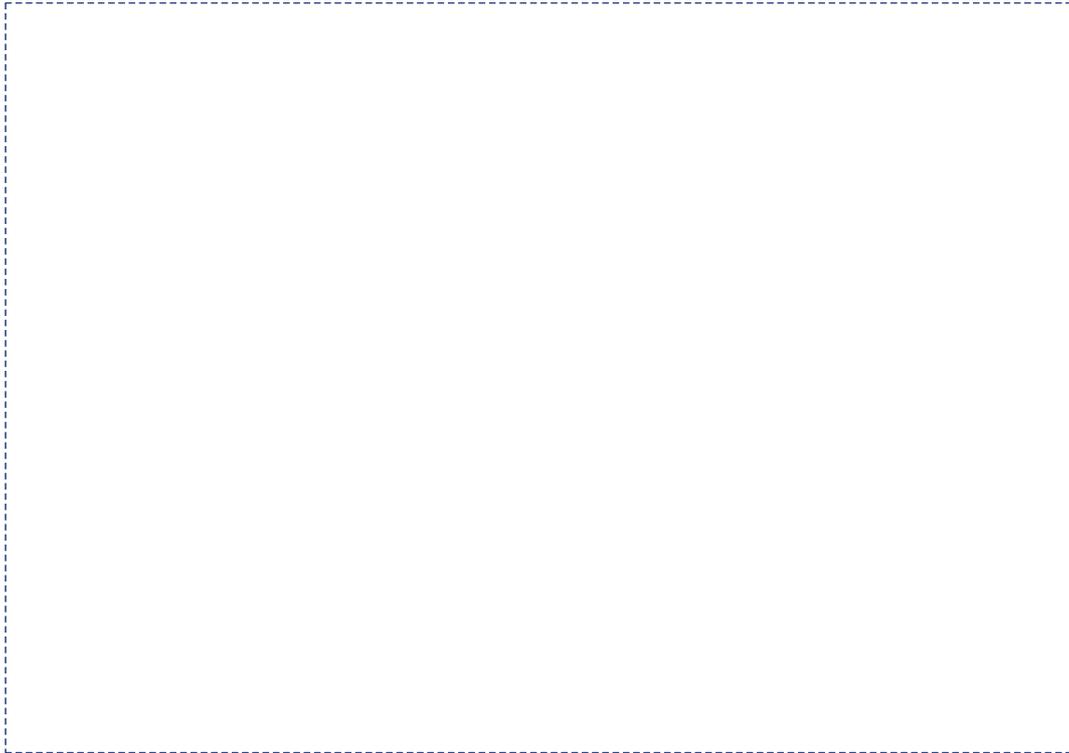
1. 도화지(16절 혹은 A4 사이즈)에 각자 자기가 상상한 피아의 모습을 그려요.
2. 각자가 그린 피아 그림을 모두 모아 집게나 제본기를 이용해 묶어요.
3. 우리 반 책장에 책을 전시해요.

나만의 피아 만들기

()학년 ()반 이름()

※ 내가 만들고 싶은 피아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 피아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
- 피아의 색은 어떠한가요? ()
- 피아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
- 피아의 촉감은 어떠한가요? ()
- 그 밖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요? ()
- 피아를 표현하는 단어를 세 개 적어 봅시다. (피아를 도화지에 다 그린 후 오리고 나면 피아 뒷면에 피아의 이름과 이 단어들을 적습니다.)
(, ,)
- 새로 지어 주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위에 떠올린 것을 바탕으로 피아를 간단하게 그려 봅시다.



●●● 수업의 초점

책을 다 읽은 후 책 속 인물들이 꿈꾸는 신비한 세계인 '이솔라'를 자신이 살고 싶은 자신만의 '이솔라'로 만들어 내는 활동입니다.

●●● 수업 속으로

1 경이로운 땅 이솔라는 어떤 곳인가?

- 탐험가 지오가 발견한 이솔라는 어떤 곳인가요? (책에서 찾아봐요.)
 “은으로 된 나무의 꽃잎은 루비이고, 풀잎은 하나하나가 에메랄드이다.
 돌맹이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졌고, 눈송이는 진주이다. 말은 하늘을 달리고 새는 걸어 다닌다.”

2 나만의 이솔라를 상상해 보기

-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내 주변의 멋진 환경, 동물, 식물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
 *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더 넓혀 봐요.

3 탐험가 ○○이 되어 상상 글쓰기

- 이솔라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본 이솔라 모습을 써요.
 * 현실을 벗어나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휴대전화는 잠시 잊어요~)

4 생각 나누기

- 친구들에게 '내'가 상상한 이솔라를 발표해 봅시다.
 - 누구의 이솔라로 가고 싶은지 이야기도 해요.

●●● 수업 팁

1. 혼자서 힘들면 모둠을 구성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2. 이야기와 함께 이솔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할 수도 있어요.
3. 학생들이 상상하여 쓴 글을 모아 '이솔라 이야기'라는 우리 반 책을 만들어요.

이슬라에 오르다

()학년 ()반 이름()

※ 이슬라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본 이슬라 모습을 써 봅시다.

내가 오르기로 마음먹은 산은 땅에서 봤을 때 그다지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자 진정한 경이로움이 드러났다.